

HOME > 전국 > 강원

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, 재해대비 저수지 비상대처훈련 실시

✎ 이우정 기자 | Ⓜ 승인 2026.05.14 17:10

[한국농어민신문 이우정 기자]



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는 상시적인 훈련으로 인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대비 저수지 비상대처훈련을 진행했다.

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는 12일 원주시 귀래면 궁촌저수지에서 재해대비 저수지 비상대처 훈련을 진행했다.

지사 직원들과 원주시청, 원주소방서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훈련은 지진, 태풍, 집중호수 등 저수지가 붕괴할 위기 상황을 가정해 하류 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게 지정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파괴된 시설물을 응급 복구하는 현장 대응을 익히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.

훈련은 재난단계를 관심.주의. 경계. 심각 4단계로 구분해 단계별로 △위험상황 공유 △주민 대피 및 교통 통제 △파손 저수지 응급 복구 및 부상자 후송 △경보해제 후 상.하류부 점검 및 후속조치 순으로 이뤄졌다.

남기두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은 "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이 잦아지고 있다"며 "상시적인 훈련을 통해 농업인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"고 말했다.

원주=이우정 기자 leewj@agrinet.co.kr



이우정 기자

저작권자 ©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